

# 안전사용은 시대적 요구



금후 농약안전사용제도 이렇게 추진돼야 한다

채 희 결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장

## 1. 농약 안전사용은 시대적인 요구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의 도모를 위한 방편과 농산물 생산의 생력화(省力化)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자재로서 농약의 비중은 자못 크다 하겠다.

「농약」은 농산물 증산에 기여하는 반면에 농산물을 이용하는 소

비자에게는 그 위해(危害)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의 보호와 상호간의 신뢰형성을 위한 농약의 안전사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욱이 농산물 수입개방의 외압(外壓)이 드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외국농산물의 수입억제를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농약안전사용의 실천이 요구된다.

## 2. 효과적인 농약안전사용제도 방안

### 가. 행정적인 고려사항

잘 알고 있는 바와같이 60년대 전후 식량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증산이 우선되어 병충해 방제지도에 주력, 치중했으나 이 시점에서는 농산물 안전생산지도가 선행(先行)되어야 할만큼 업무비중이 높아졌다.

이같은 시류(時流)에 따라 농업 관련 각 정부기관과 농업단체에서는 지혜와 노력을 모아 농약 안전 사용 계도에 힘쓰고 있다. 즉, 각 기관과 단체에서는 산하의 일선조직과 많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교재와 교구의 제작, 보급 및 포장지도, 농민교육, 홍보매체를 동원한 다채로운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옴으로써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농민 및 각계의 인식과 공감을 크게 확산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과정중 각 기관, 단체 상호간에 사전 업무조정과 협의, 정보교류, 활동평가 미흡, 각개 추진에 치중하여 예산 노력등의 낭비는 물론 상호간 공

관련 기관, 단체의 참여 아래 업무추진 방향과 역할 분담 등 사전 협의와 사후 평가 등에 대한 정기적 협의가 필요하다.

동 협조에 의한 기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계도활동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인 고려사항은 첫째 중앙단위에서는 물론 지방단위까지 농업관련 정부 기관과 농업단체, 농약제조 및 판매업체·농민 자생단체, 그밖의 관련요원의 참여 아래 사전 업무추진 방향과 기능, 역할조정 및 분담에 대한 협의와 사후 활동평가 등 정기적인 협의가 있어야 보다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활력있는 계도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부예산 투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농약제조업체에서도 그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되겠다.

### 나. 교육개선측면의 고려사항

농약안전사용계도는 1차적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대상은 농민을 우선해야함은 재론(再論)의 여지가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영농주체 대다수가 학습 이해도가 더딘 노령, 부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들이 쉽게 이해, 실천할 수 있는 교재, 교구제작은 물론 세련된 교육기법 동원과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농약은 작목별, 병충별, 시기별, 그리고 희석배수, 혼용가부 등 사용방법이 복잡다기하고 약종이 다양하여 교육기법과 교구 및 교재제작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재, 교구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림중심의 작화교재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됨으로 내구성이 높은 교재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은 이론보다 오히려 실기중심의 포장지도에 주력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천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실기포장지도가 확대되도록 농약제조업체에서는 농약지원등 이 부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대한 참여가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을 지키고 가꾸어 나갈 어린이와 청소년을

안전사용 계도는 1차적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농민이 쉽게 이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 교육이 요구된다.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보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환경처에서 국민학교 대상 환경정화 의식 교육용 만화교재를 발간, 보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간과(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농촌청소년 대상교육은 장래를 대비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학습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가족과의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소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농약안전사용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농산물공급을 통해 농민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농약의 이해」를 주제로 한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농약의 위해와 안전 양면에 걸쳐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언론인, 학자등을 대상으로 한 고차적인 교육방법 동원과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중심에서 이루어 지던 심포지움 및 세미나형태의 교육을 지방순회로 확대하여 소비자, 언론인, 학계측으로 부터 농약에 대한 좋은 여론과 인식, 이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본다.

특히 언론인에게는 농약의 위험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농약안전사용을 계도해가는 주역의 역할이 주어지도록 면밀한 연구로 이들을 접촉해야 할 것이다.

### 3. 안전사용계도 촉진을 위한 홍보개선방향

#### 가. 자체 홍보매체의 활용

여기서 자체 홍보매체라 함은 농림수산부, 내무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과 농협, 축협등 농업단체의 중앙 및 산하 시군 조직과 사업소에서 동원활용될 수 있는 홍보기능을 총칭한 것이다.

자체 홍보매체를 살펴본다면 먼저 중앙과 시군, 읍면에서 발간하는 정기·비정기 인쇄물 교재가 엄청난 것이다. 또 시군에 방송스피커가 장착(裝着)된 가두방송용 차량도 훌륭한 홍보매체로 볼 수

농약사용 성수기 만이라도 비상한 관심과 창의력으로 자체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있다. 전국 자연부락에 거미줄처럼 번져있는 유선앰프방송망은 농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훌륭한 홍보매체이다. 이러한 홍보매체가 농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농약 안전사용계도에 소망대로 가동, 활용되었는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일선 조직요원들의 분발이 요구되며 중앙에서도 일선 홍보매체가 보다 강력하고 다채롭게 활용되도록 특별한 연구와 관심을 경주하여야 한다. 필자의 일선 근무경험에 따르면 일선 직원들은 대부분 외·내근(外內勤)을 겸할 뿐 아니라 단순업무가 아닌 2~3개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 가까이 있는 매체 활용에 치중할 여유가 별로 없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에서는 일선의 홍보매체가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가두방송 및 마을유선방송용 원고안을 위시한 만화등 작화교안, 인쇄물 게재

용 표어, 칼럼 원고문안, 포스타 안 등을 다채롭게 구상, 제작, 공급하는데 배전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일선요원들은 농약 성수기만이라도 직무의욕을 가다듬어 비상한 관심과 창의력을 가지고 자체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급 농민집합 교육시에는 틈을 내어 반드시 농약안전사용을 주지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각급기관에서는 청사 외벽과 차량 등에 내구성(耐久性)이 높고 보기 좋은 현수막과 스틱카, 포스타 등을 게시하는 데도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나. 외부 홍보매체의 활용

### (1) 신문

표1과 같이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언론자유화의 일환으로 중앙지 및 지역신문이 대폭 늘어났다.

신문매체는 공신력과 보관성이 높고 독자에게 직접 배달되는 만큼 그 위력(威力)은 대단하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중앙지 과학부 또는 농업부문 전문기자와의 부단

표1. 지방신문사 현황

( '91. 9월 현재 )

지역	계	일 간 지	주간지 기 타
합계	112	34	78
부산	3	부산일보, 국제신문, (3) 항도일보	0
대구	4	매일신문, 영남일보, (4) 경북일보, 대구일보	0
인천	7	인천신문, 기호신문 (2)	5
광주	4	광주일보, 무등일보, (4) 전남일보, 전남매일	0
대전	4	대전일보, 중도일보, (3) 대전매일,	1
경기	28	경인일보, 경기일보, (6) 경인매일, 부천신문, 수도권일보, 중부일보	22
강원	7	강원일보 (1)	6
충북	9	충청일보, 중부매일 (2)	7
충남	15	(0)	15
전북	6	전북일보, 도민신문, (3) 전라일보	3
전남	0	(0)	0
경북	8	(0)	8
경남	14	경남신문, 경상일보, (4) 신경남일보, 경남매일	10
제주	4	제주신문, 한려일보, (3) 제민일보	1

한 교분과 설득을 통해 「농약안전 사용제도」가사가 긍정적인 이해 아래 다수 보도되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농약문제로 악성 여론이 형성될 때에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독자투고」란등에 투고를 통해 이를 해명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선에서는 시군에서 발간되고 있는 지역신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시군에서 발간하고 있는 지역신문은 취재 및 편집직원의 부족으로 고급기사의 투고를 환영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신문과의 부단한 유대를 형성, 병해충 방제요령과 농약안전사용계도용 기사가 다수 투고, 보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2) 라디오 방송

전국적으로 라디오방송국과 전파발사가 가능한 중계소가 중앙 및 시군에 산재해 있다. 이들 라디오 방송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라디오방송은 속보성(速報性), 광보성(廣報性)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농민들이 영농작업 중에도 청취할 수 있는 동시성(同時性)도 지니고 있어 농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매체이다.

형태에 따라 「출연」 「스팟트뉴

신문과 부단한 유대를 갖고 병해충 방제요령과 안전사용계도용의 기사가 다수 투고, 보도되도록 힘써야 한다.

스」 「현장취재」 「공지사항」 등 다양하게 프로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므로 청취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를 구상, 참여하면 커다란 홍보효과가 기대된다.

필자는 일선 재직시 방송국직원과 잦은 교분을 가져 이들로 부터 의외의 협조를 받은 바 있다.

## (3) TV방송

TV는 외부 매체중 시청자로 부터 가장 선호받는 매체이다.

참여할수 있는 프로는 다종, 다양하다.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발휘, TV 매체이용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시군에서는 낮 유선방송 시간대에 병해충방제와 농약안전사용 계도용 자막방송 원고를 다수 투고하여 이 매체의 위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TV 유선 방송 자막기사는 되도록 요점 중심의 자막안을 구성, 시군 문화공보실을 경유, 투고하면 대다수 보도에 응해 준다.

특히 농번기 농약성수기에는 이 TV 유선 자막방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농약 안전사용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천으로 옮겨지도록 해야 하겠다.

#### (4) 마을 앰프방송

일선 직원들은 농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앰프방송 이용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앰프방송 활용은 마을주민에게 직원들의 활동상황을 인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송후에는 농민들과 대담을 통해 추수(追隨)지도의 효과도 거양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보다 창의적인 탁견(卓見)도 많을 것이다. 효과가 큰 좋은 방안을 다수 채택, 실천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 4. 조사, 평가활동의 강화

농약사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다.

농약사용의 이점(Benefit)과 위험(Risk)를 실증, 확인시킬 수 있는 농약사용 포장(圃場)과 무사용

포장을 설치하여 농약사용상의 득실(得失)을 검증하는 연구 조사사업이 농약제조업체의 주도적인 참여 아래 실시되어야 한다. 이 포장에 소비자 및 언론인 등 비판인사를 다수 초청하여 농약사용의 불가피성과 그 이점을 확인, 검증시키는 한편 농민들에게도 올바른 농약사용의 시범 현장교육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함께 대외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평가사업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생산농민과 소비계층 양측을 대상으로 농약사용에 대한 인식과 사용행태(行態)등을 면밀히 조사, 확인된 자료에 의거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농약제조업체는 이러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농산물 생산농민과 소비자 양자가 선호하는 약제개발상의 정보를 수집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농민은 줄고 소비자인 도시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속에서 농약 위해론의 거센 비판은 결코 줄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농민, 농업관련 공직자의 노력은 더욱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